

# 엑스포 관객유치 저조 대책 비상

## 승용차 도심 진입 일부 허용

### 티켓 가져오면 밥값 등 할인

#### 야간 입장권 신설도

여수세계박람회(8월 12일~이하 박람회) 관람객 일부를 교통 체증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에서 여수 도심으로 진입시키고, 야간 입장권을 신설하는 등 관람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자구책이 나왔다.

현재 관람객들이 환승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순환버스를 이용해 박람회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수 도심은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다.

또 여수 지역 상인들이 박람회 관람객들에게 평소 요금보다 5~10% 가량 할인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관람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1일 여수시는 "최근 이 같은 환승주차장 타력 운영에 대해 조적위에 건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시가 도심에 마련한 임시주차장(2만면)을 먼저 채우고, 시 외곽 4곳의 환승주차장으로 다른 차량을 유도한다면 원활한 교통 소통과 상권

을 모두 살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여수시 도심 곳곳에 설치된 14곳의 임시주차장을 이용하는 관람객은 무료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박람회장에 입장할 수 있다. 또 관람객을 임시주차장과 환승주차장으로 분산시키면서 지난 5일 개막전 열린 예행연습에서 벌어진 환승주차장 대란도 피할 수 있게 된다.

여수시는 또 "음식점 업주 등 지역 상인들과 논의를 통해 박람회 입장권을 소지한 관람객들에게 5~10%가량 할인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외식업 여수지부와 숙박업 여수지부는 지난 18일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시보건소에서 요즘급안정화를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갖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를 위해 15개 업소가 박람회 입장권을 소지한 관람객에게 5~10% 음식요금을 할인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또 여수수산물특화시장도 같은 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박람회 입장권을

소지한 모든 관람객들에게 수산물을 10% 할인해서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22일 전체 상인들이 모여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홍행 부진에 따른 조적위의 대책도 나오고 있다. 조적위는 21일 "관람객 유치 전략의 하나로 오후 6시 넘어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저렴한 입장료를 받는 야간권을 신설하기로 했다"면서 "단체관람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국내 여행사들과 협의해 가격 할인을 더욱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애초 관람객 유치 목표였던 1082만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11만6000명 이상이 박람회장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 하루 평균 관람객은 4만명을 밑돌고 있어 나온 교육지책이다.

조적위는 발행 시기와 가격, 규모 등은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반값 입장권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 필리핀관 인기

여수세계박람회 개막 10일째인 21일 관람객들이 국제관 내 필리핀관을 관람하고 있다. 필리핀이 자랑하는 고운 빛깔의 바다와 모래를 소재로 꾸며 인기를 끌고 있다. /여수=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발레 '심청' 빅오 해상무대에서 공연

#### 28일부터 3일간

'발레 한류'를 이끌고 있는 유니버설발레단의 대표작 '심청'이 여수세계박람회 빅오(Big-O) 해상무대에서 공연된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야외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은 한국 발레 역사상 처음이다. 박람회 조적위는 21

일 "유니버설발레단의 '심청'이 공식 초정파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해상무대에 오른다"고 밝혔다.

발레 심청은 부모를 공경하는 한국 고유의 정서와 서양의 예술장르인 발레가 만나 빛은 글로벌 창작품이다. 이번 해상무대 공연은 발레 심청의 또 다른 도전이다. '수면의 무대화'는 야외공연의 세계적 트렌드이며 오페

성을 쌓고 있다. 월드투어를 통해 '발레 한류'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대작이다. 워싱턴 케네디센터, 뉴욕 링컨센터, LA뮤직센터 등 이른바 미국 3대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됐다.

이번 해상무대 공연은 발레 심청의 또 다른 도전이다. '수면의 무대화'는 야외공연의 세계적 트렌드이며 오페

라, 뮤지컬 장르에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지만 발레 공연은 매우 드문 일이다. 발레는 토슈즈를 신고 발끝으로 중심을 잡으며 춤추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유니버설발레단 문훈숙 단장은 "바다 위 수상 무대는 습기 때문에 무대 바닥이 미끄러울 가능성이 커서 발레를 공연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면서도 "박람회가 한국을 세계에 홍보하는 행사인 만큼 이번 해상 공연은 매우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 현장과 시각

### 국익이나 국민건강이나



오 광록 (정치부 기자)

여수세계박람회 관람객이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관람객 유치 목표였던 1082만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11만6000명 이상이 박람회장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 4만명을 밑돌고 있다.

지난주 박람회 실내 공기질 검사 결과에 대한 기사화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가 지역과 나라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바람 때문에 기자와 데스크들은 수차례 회의를 거듭했다.

'국익이 먼저냐' '국민의 건강이 먼저냐'는 고민은 쉽게 결론 내려지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관람객이 없는데, 공기질에 대한 지적이 박람회 흥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람객 중 어린이와 노약자들도 많은데, 무작정 모면착할 수도 없는 노릇이

였다. 여러 채널을 통해 조적위에 "시급히 전시관 공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를 하기도 했다. 공기질 현황과 관련 대책을 공개할 것 등을 조적위에 공식 요구했다.

하지만 조적위의 반응은 냉담했다. 검사 당일, 일부 공간에서 공사가 한창이어서 결과가 높게 나왔을 뿐이라는 게 조적위의 입장이었다.

이번 박람회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이를 현명하게 이용해 인류의 새로운 발전을 추구한다는 주제로 펼쳐지고 있다. 인간의 생명력이 자연으로 이어지고,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생하고 교감한다는 주제 의식을 형상화한 것이다. 친환경은 이번 박람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다.

반면, 조적위의 최근 행태는 전혀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전시관 공기질 조사는 조적위가 먼저 전남도에 의뢰했다. 조적위 고위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개막전 박람회장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했지만 결과가 나왔다. /kroh@kwangju.co.kr

여러 사정으로 전시관 품질이 저조 수치가 높게 나올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후 조적위의 모습이다. 공기질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지금까지 외부로 알려진 후속 대처는 전남도에 모든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말도록 요청한 것 뿐이다.

친환경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먼저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 기본이다. 우리 주변에서 환경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를 찾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바로 친환경이다.

친구가 놀러 오면 방을 깨끗이 치우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일이다. 조적위는 박람회 관람객이 반토막 나더라도, 전시관 공기질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친환경 박람회'를 논하는 게 순서다.

그게 바로, 띄어박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국민과 "우리로 박람회를 치른다"는 자부심에 전시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며 '친환경 박람회'의 가치다.

#### 홍라희 리움미술관장

#### 아쿠아리움 등 관람

삼성 이경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이 21일 여수세계박람회를 관람했다.

지인 10여명과 함께 여수를 찾은 홍 관장은 가장 인기가 많은 전시관 중 하나인 아쿠아리움을 가장 먼저 찾아 30여분간 환고래 벨루가 등 300여종의 바다 생물을 구경했다.

홍 관장은 이어 눈보라가 몰아치는 북극 블리자드 체험과 북극곰을 통해 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표현하고 있는 기후환경관, 각국의 문화를 전시해놓은 국제관도 찾았다.

오후에는 삼성관을 찾아 자연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한 메시지를 담은 공연과 영상을 관람했다.

삼성관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대형 퍼포먼스 프로덕션인 AEP의 단원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 빛의만평

- 김중두



열기라곤 날씨뿐이더라



필드에서 비를 만나는 경우 34% 골프를 치다보면 손에 땀이 나는 경우 98%

## 땀이나지 않는 골프장갑

## 비올때 미끄러지지 않는 골프장갑

“이 2가지를 만족시켜주는 것은 SR30장갑 뿐입니다.”



#### Sweat 땀 발생 ZERO

10개의 매직홀과 120개의 미세홀이 손 안의 온도조절을 해주어 30°C에서도 땀 발생을 억제합니다.

#### Rain 우천시 미끄러짐 ZERO

초미세세사 0.402원단은 물기접촉시 3배의 마찰력으로 장갑 교체없이 18홀 라운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 30°C 시원한 바람이 솔~솔~

원심력 작용에 의한 매직 통풍홀의 찢김 방지 및 최고급 실리온 처리는 그립력을 더해 줍니다.



SR30골프/통풍형 SR30골프/통풍형  
₩ 15,000/남 ₩ 25,000/여

SR30골프/통풍형 SR30골프/통풍형  
₩ 15,000/남 ₩ 25,000/여

SR30트레킹/통풍형 SR30트레킹/통풍형  
₩ 30,000/남 ₩ 30,000/여

SR30은 골프, 트레킹, 스포츠레저용 장갑의 전문 브랜드입니다.



본사 홈페이지 방문구매 고객에게 최고급콜트시증정 (05.22~05.25)  
고객센터(본사) : 070-7767-5447 062-610-5454 /광주 광역시 서구 매월동 952-7  
골프 및 스포츠용품 업체 직접 상담 / 판촉 및 단체주문 상담가능 [www.SR30.com](http://www.SR30.com)